현불 논단

유튜브와 中道

황순일 교수
동국대 불교학부



코로나19로 스트리밍 서비스 '각광'
1인미디어 표방 '유튜브' 높은 성장
어린이들 장래희망에 '유튜버' 올라

접근 용이 · 정보 공유 유튜브의 장점
자극적 콘텐츠로 구독자 유치 '문제'
가짜뉴스 · 과장 정보로 사람들 현혹

인간 욕망 · 번뇌 사이버 공간도 오염
스스로 '중도'적 가치 살피며 이용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독함 또는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 공간 또한 우리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이야 말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로 가득한 허망하고 전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많은 회사들이 위기에 봉착했지만, 넷플릭스(Netfix)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디맨드(On Demand)' 스트리밍 서비스는 날로 번창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전문 프로그램들을 월정액에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면, 유튜브는 1인 미디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유튜버(YouTuber)가 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어린 아이가 장난감 유튜버로서 매달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유튜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자신만의 지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며, 자신만의 고민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검색하는 수단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글이나 네이버를 대신하는 검색 및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서 유튜브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친구 숫자 또는 팔로워 숫자에 매달리는 것처럼, 유튜버(YouTuber)들은 자신의 채널을 즐겨 찾는 구독자의 숫자에 매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구독자 1000명에 구독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를 통해 개개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부리는 허세는 유튜브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라는 가상공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채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과장되고 극단으로 치닫으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정치를 논하는 유튜버들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상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간접 광고에 매진하고 있으며, 먹방 유튜버들은 엄청난 폭식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허세가 가치중립적이었던 사이버공간마저도 허망하고 전도된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에 장시간 유튜브의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문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majjhima patipada)'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된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社 說

만행결사 '불교중흥' 초석되길

부처님 숨결 따라 도보로 인도를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원의 인도만행결사를 앞두고 예비 순례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주 태화산 일원서 열렸다. 인도만행결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뜻과 의미를 계승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두 번째 결사로, '45년간 길 위에서 수행, 전법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탈종교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흥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됐다.

본래는 오는 11월에 인도 7대 성지를 순례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순례 참가자는 모두 110명으로, 이들은 입재 · 회향일을 제외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4시부터 한국문화연수원 인근 태화산 일대를 30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순례대중들의 원력이 담긴 걸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앞선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다.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하고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결기에 대중들은 감화됐다. 유튜브로 선원 소식을 전하고 외호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 결사로서의 면모도 화제였다.

천막결사가 '좌선(坐禪)'을 중심으로 한 정진이었다면, 이번 만행결사는 '행선(行禪)'을 바탕으로 한 정진이다. 수행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상월선원의 원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원력의 결사는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만행결사 참가 대중이 내딛는 걸음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위기의 법화종, 결단 필요하다

신라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계승해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중생교화와 호국불교를 종지로 활동해온 법화종이 과거의 위상에 역행하고 있다. 올 1월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배임수재죄로 법정 구속되면서 불교계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전한데 이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단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법화종 내홍이 외부로 드러난 계기는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주지 임명으로 인한 논란 때문이다.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 체제의 총무원 집행부는 前 총무원장이자 안정사 주지였던 도성 스님의 구속 이후 공석인 주지직에 A스님을 임명했지만, A스님이 과거 강간치상과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다른 전과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총무원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범죄경력증명서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증명서의 발급용도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스님이 안정사 주지 임명 이틀 뒤에 종단에 2억원을 입금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총무원과 중앙종회 간 대립도 심각하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불신임하고 배임수재로 검찰고발한데 이어, 총무원 역시 종앙종회 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단 정상화의 시작은 원칙과 투명성이다. 종헌종법에 근거해 모든 임직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前 총무원장 때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바로 잡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법화종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종단이 창종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변화의 물결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 그릇 키우기

세상에는 자기를 세우는 사람과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꾸짖으면 자신도 그만큼 되돌려 줍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미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꾸짖어도 되돌려 꾸짖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움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또 남이 때린다고 해도 되돌려 때리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꼭 되돌려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즉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자와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군요.

사자 한 마리가 큰 나무 아래 누워 있는데, 바람이 불어 나무열매가 사자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화가 나서 나무를 꼭 혼내주려 벼루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사흘 째 되던 날, 한 목수가 수레바퀴에 쓸 재목을 찾아 산에 왔습니다. 사자는 나무에게 복수 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목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수레바퀴에 쓸 재목이라면 이 큰 나무를 베어가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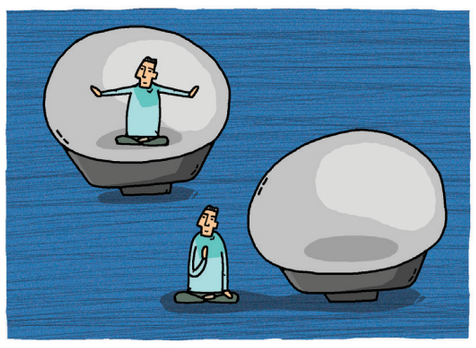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목수는 사자의 말대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넘어진 나무는 목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자의 가죽을 바퀴에 사용하면 아주 질깁니다."

목수는 나무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자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사자와 나무는 하찮은 일로 서로가 자신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남으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본다면 그 순간은 분한 마음뿐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한 마음을 삭히고 삭힌 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찮은 일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참고 있을 걸…' 이런 후회를 해본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복수혈전'은 영화이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앞뒤 재다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고 맙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분노의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인생 낭비입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느덧 자신의 마음그릇이 커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그릇이 커지면 남을 미워하는 일도,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드니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도 편안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천지일보·천지TV의 '신앙의 노정' 영상에 대한 통도사 입장문

2020년 2월 10일자로 통도사에 접수된 공문에서 **'2020년 경자년 위 매체는 한국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통도사 탐방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통도사 세계문화유산을 두루 취재하고자 합니다'**라는 요청을 명시하였고, 이후에 체결된 '영화 및 방송 촬영 협조 계약서' 제1조에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대상작품의 제작목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묻는 통도사의 질문에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종교성향일 뿐 천지일보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통도사 측에서 확인한 '신앙의 노정'이라는 촬영결과물을 보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본래 계약과 달리 오히려 통도사 또는 조계종 소유의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자신들의 교리를 소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촬영목적은 물론, 그 내용과 범위를 위반하였습니다. **신천지이든 기독교의 다른 교파이든 상관없이 통도사 측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 통지를 2020년 7월 21일 천지일보 측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통도사의 계약위반 및 해지 통지에 대하여 천지일보 및 천지TV가 2020년 7월 29일 언론 및 공문을 통하여 밝힌 입장문을 보면, 통도사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과 더불어, 이 영상이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기독교 교리와의 '비교' 또는 '병렬' 방식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와 비교하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았다면 통도사는 촬영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천지일보 측의 유감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촬영영상의 도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기독교 중심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특히 후반부 엔딩멘트 직전(28분 30초)의 표현을 보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모든 생각을 이제 버려라
네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들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있는 거에요. 본향을 찾아 가야 돼.
귀소본능이라고 있지. 뭐든지 자기가 낳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곳이야.
그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야. 지금 하늘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나레이터의 엔딩멘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녀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이는 적다'라든가 '하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만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촬영물을 제작함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통도사,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촬영계약서 제6조 3항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입장문 후반에서는, 해당 영상 하단 첫 댓글에 "이 영상은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개인적 소견을 담았다"는 문구를 달아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지일보와 천지TV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대부분이 이상면 대표의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영상에 대한 촬영주체로서의 관리와 심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도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언론에서는 7월 30일 오전 천지일보·천지TV 측의 해당 영상삭제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종교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과표명 없이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본 영상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영상 삭제의 이유는 촬영영상물 자체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를 비롯한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통도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종교 갈등의 이유를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천지일보의 사시(社示)를 존중하며, 앞으로 통도사는 불교계 및 불교언론과 함께 천지일보·천지TV의 제작영상에 대한 관심 있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교교리와 문화를 왜곡·폄훼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이번 사건과 더불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64년 7월31일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